



본격 상승을 위한 조건

Why This Report

KOSPI가 강한 반등 후 차익 실현 매물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급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등하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 낙폭의 50%되돌림선인 1,892pt 또는 38.2% 되돌림선인 1,863pt 부근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보다는 조정을 이용해 저가 매수 기회를 타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위해서 최소한 1,940pt를 넘어야 하므로 중기적으로는 이 가격대 수준을 상승 목표치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KOSPI, 장기 상승으로 진행되기 위한 조건

- 56월 이평선의 지지로 반등한 경우 14월 이평선이 반등 목표치로 작용. 본격 상승국면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940pt 수준의 저항을 넘어야 함
- 중기적으로 매수 관점 유지해 1,940pt를 목표로 하고, 이 가격대 돌파와 안착을 확인할 경우 재매수하는 전략 필요. 1,940pt 돌파하지 못할 경우 56월 이평선 지지를 장담하기 어려움

단기 상승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 과거 급락 후 반등 시도가 나타났던 시점을 보면 38.2% 또는 50% 수준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음
- 현재 38.2% 수준은 1,863pt이고, 50% 수준은 1,892pt임. 이미 단기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상승할 경우 1,900pt 전후한 수준을 목표로 보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 필요
- 단기 고점 형성 후 소폭의 등락 과정 속에서 횡보 후 상승하므로 조정을 이용해 저가 매수 기회 타진 필요

G2 증시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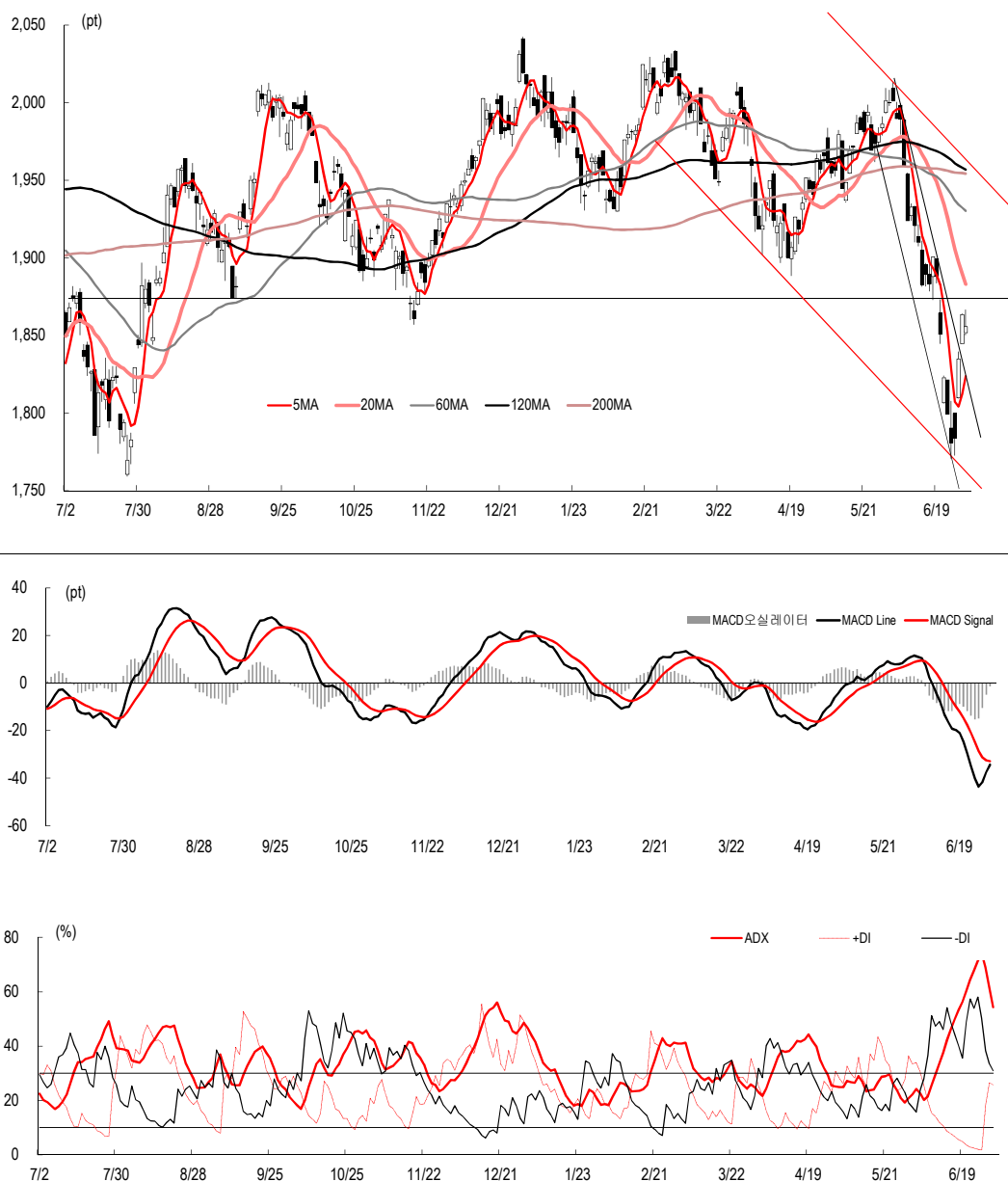
- 최근 급락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 월봉상 하락 켜기형 패턴 하단선의 지지력 확인하고 반등했고, 일봉상 박스권 하락 목표치에 도달한 상황으로 이전 저점대 이탈하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 낮음
- 미국 S&P500지수의 경우 주봉상 돌파된 채널 상단선의 지지력 확인, 일봉상 120일 이평선 지지되어 당분간 단기 저점대를 이탈할 가능성 낮다고 판단

단기 매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 중기적으로 1,940pt 목표

- 1,940pt 수준이 중기적으로 중요한 저항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해야 장기 상승 추세 국면 전환 가능
- 단기적으로 1,863pt 또는 1,892pt 수준이 고점이 될 전망, 조정을 이용해 매수

KOSPI, 장기 상승으로 진행되기 위한 조건

KOSPI 일봉, 5, 20, 60, 120, 200일 이동평균선, MACD, D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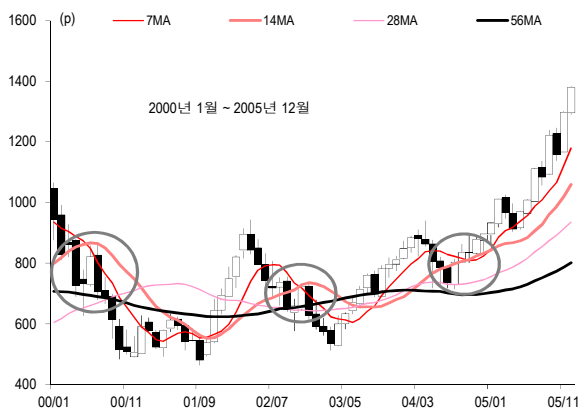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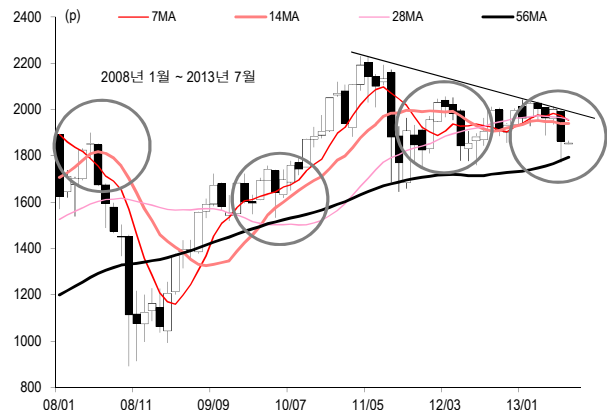
KOSPI 가 이틀 간의 강한 반등 후 차익실현 매물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소폭 하락 마감되었다. 5월 말 고점에서 그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5월 이평선은 이미 상승 전환되어 단기 저점은 확인된 모습이다. MACD 와 DMI 등 추세 관련 보조지표들은 매수 시그널 발생 직전으로 단기 상승 지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상승이 중장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다. 먼저 장기 상승추세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KOSPI 월봉, 이동평균선, 14 월 이평선 돌파가 본격 상승의 관건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월봉, 이동평균선, 14 월 이평선 돌파가 본격 상승의 관건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위의 차트는 월봉상 7, 14, 28, 56월 이평선을 나타낸 것이다. 월봉상 장기 이평선은 56개월 이평선으로 이 가격대를 이탈하기 전에는 월봉상 상승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단기 저점이 56월 부근에서 형성되었다. 56월 이평선이 지지된 것은 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월봉상 장기 추세를 위협할 정도로 단기 또는 중기 매도세가 강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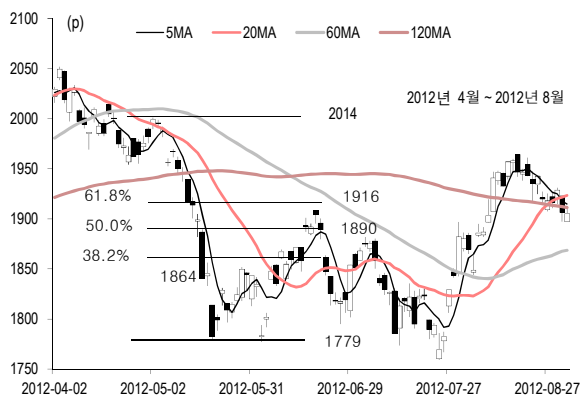
과거 56월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한 경우 대체로 상승 추세에 복귀하기 보다는 하락세가 이어졌고, 반등 과정에서 14월 이평선이 반등의 한계가 되었다. 반면 14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확인하면(2004년 10월) 상승 추세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14월 이평선은 1,939pt에 위치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면 이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12년에는 14월 이평선을 돌파하고도 다시 이탈하면서 추세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14월 이평선 위에 월봉상 하락 추세선, 이전 고점대 등의 저항대가 존재해 상승 추세로 복귀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선 상승 추세 국면 진입 가능성은 14월 이평선 회복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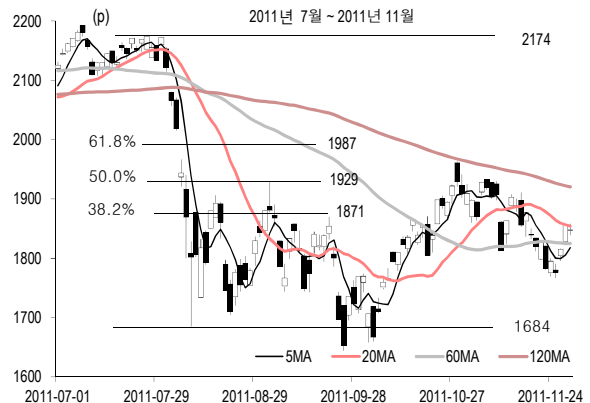
단기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KOSPI 일봉, 급락 후 단기 되돌림 비율 사례 (2012)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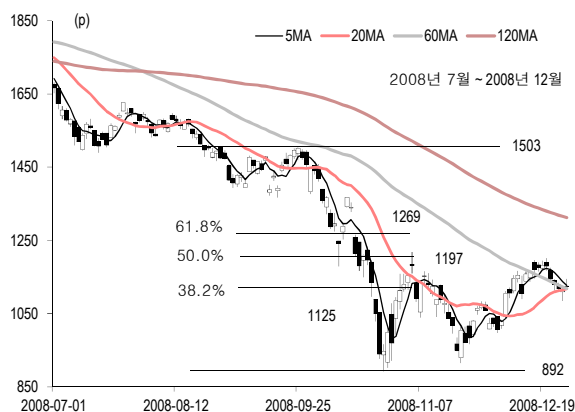
KOSPI 일봉, 급락 후 단기 되돌림 비율 사례 (2011)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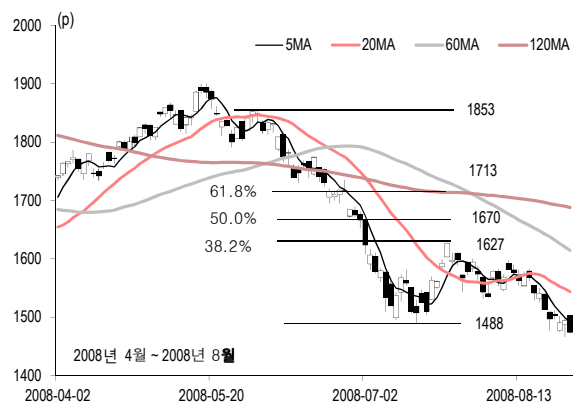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패턴을 보일까? 대체로 단기 하락 폭의 50%를 전후한 수준까지 반등 폭을 확대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한 달 이상 횡보한다. 위와 아래 차트는 2006년 이후 단기 2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10%이상 하락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위의 차트는 2012년과 2011년의 급락 사례인데, 급락 후 단기 반등 과정에서 50% 전후한 수준까지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횡보한 후에 본격적인 방향성을 형성했다. 아래 차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가 흐름으로 2008년 7월에는 단기 하락 폭의 38.2%수준까지 반등하고 횡보한 후 하락했고, 2008년 11월에는 하락 폭의 50% 수준까지 회복한 후에 다시 하락했다.

KOSPI 일봉, 급락 후 단기 되돌림 비율 사례 (2008)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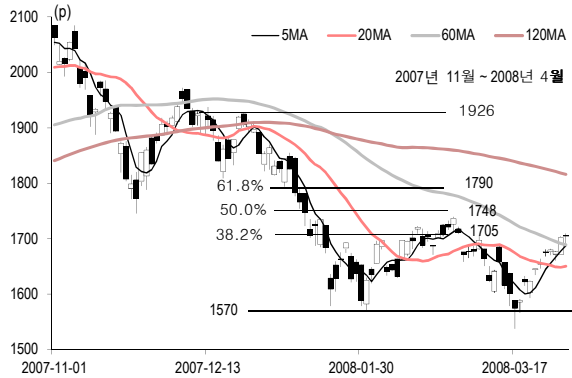
KOSPI 일봉, 급락 후 단기 되돌림 비율 사례 (2008)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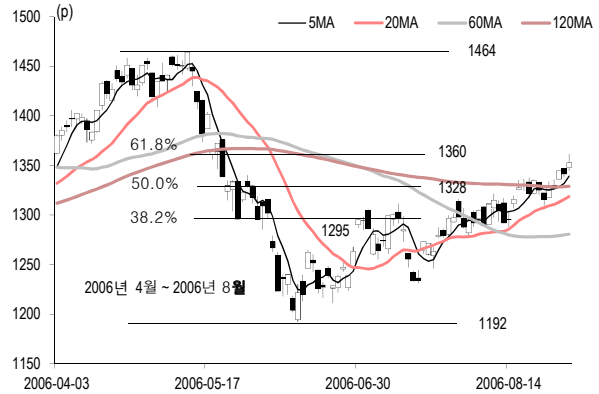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 일봉, 급락 후 단기 되돌림 비율 사례 (2008)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일봉, 급락 후 단기 되돌림 비율 사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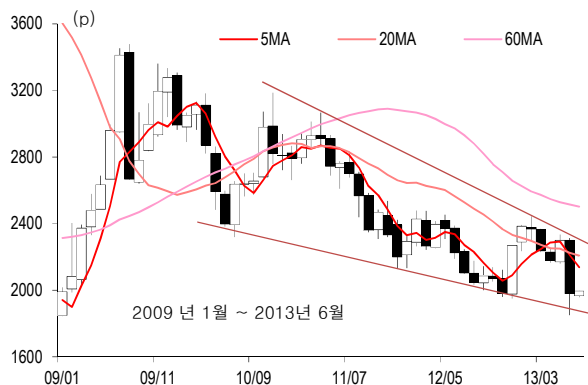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2월에는 낙폭의 50%, 2006년 7월에는 낙폭의 38.2% 수준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되었다. 현재 38.2%되돌림 선은 1,863pt 수준이고, 50%되돌림선은 1,892pt 이다. 즉, 이미 단기 고점이 나왔을 수 있고, 추가로 상승한다면 약 1,892pt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 단기 등락 과정에서 단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시장 에너지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940pt 돌파에 성공하면 추세 상승으로 진행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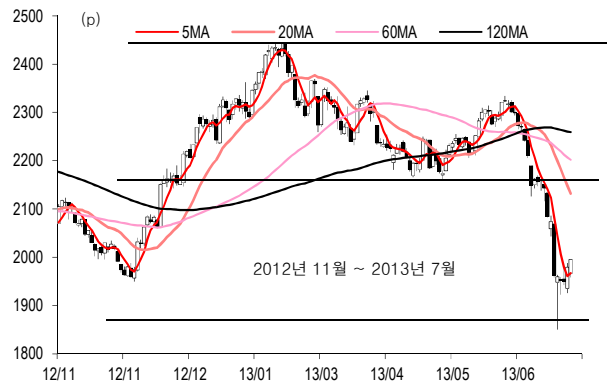
G2 증시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낮은 상황

상해 종합지수 월봉, 쉐이형 패턴 하단선 지지 확인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상해 종합지수 일봉, 박스권 하락 목표치 도달 후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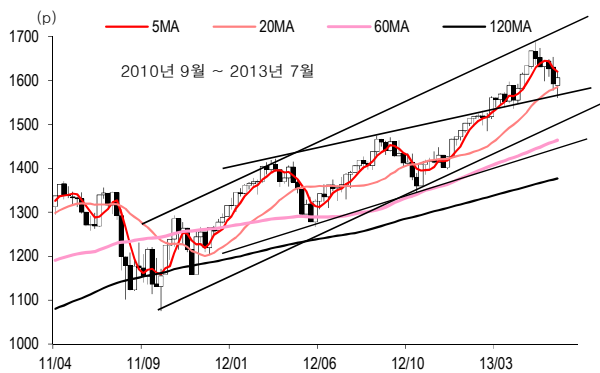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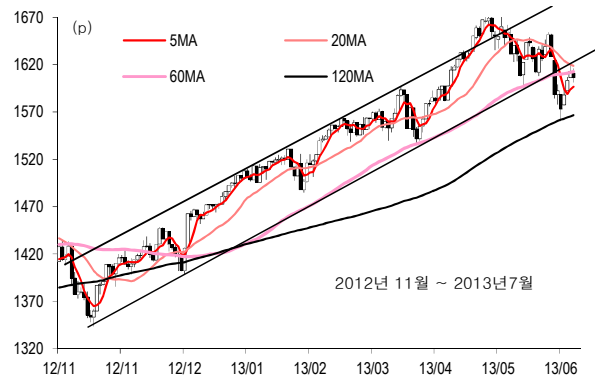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기대감으로 시작된 하락이 중국 시장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6월 25일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런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6월말 하락 과정에서 하락 쉼기형 패턴 하단선 수준까지 하락한 후 반등에 성공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한 모습이다. 또한 일봉상 박스권 하락 목표치에 도달하고 반등한 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S&P500 주봉, 돌파된 채널 상단선의 지지대 도달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S&P500 일봉, 120일 이평선의 지지력 확인 후 반등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S&P500 지수 역시 반등 국면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주봉상으로 S&P500지수는 2012년 3월과 9월 고점대를 연결한 추세선이 지지대로 작용했고, 이 가격대에 상승하는 20주 이평선도 존재해 강한 지지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봉상으로는 최근 단기 저점이 120일 이평선의 지지대에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120일 이평선은 한 번에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확보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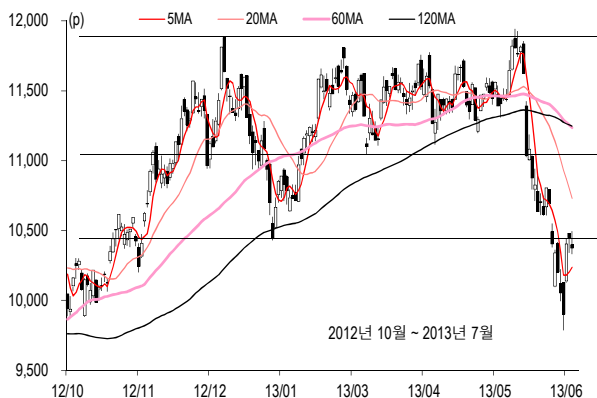
이들 G2시장의 흐름을 요약하면 소폭의 등락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형성된 단기 저점대를 쉽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지수가 안정적인 상승추세로 복귀할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고,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이들 시장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투자전략 : 1,940pt 중기 목표,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

KOSPI가 56월 이평선의 지지로 반등했다. 과거 경험적으로 56주 이평선이 지지될 경우 중기적인 반등 목표치는 14월 이평선이 되고 동 이평선은 현재 1,940pt 수준에 존재한다. 본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서 동 이평선 돌파와 안착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이 가격대를 중기 상승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급락세가 이어진 경우 단기 고점은 대체로 38.2% 또는 50% 되돌림 수준에서 나타난다. 현재 38.2% 되돌림 수준은 1,862pt 이고, 50% 되돌림 수준은 1,892pt 수준으로 이미 단기 고점이 나왔을 수 있고,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1,900pt 를 크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전자 업종지수 일봉, 이탈된 이전 저점대의 저항 도달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운송장비 업종지수 일봉, 채널 상단선의 저항 도달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대외적으로 이번 하락 과정에서 한국시장에 중요한 영향이 있었던 미국과 중국 증시의 경우 중요한 지지대를 확인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한국시장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들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 복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업종별로도 주요 업종지수가 단기 반등 과정에서 저항에 걸린 모습이다.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올해 1월 말 저점대가 저항이 되고 있고, 운송장비 업종지수는 채널 상단선의 저항에 도달했다. 다만 운송장비 업종지수는 단기 저점이 높아져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매도 시점을 찾고, 조정을 이용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